

“최정우 포스코 회장 해고한다” ...한 달 새 산재 사고 다섯 건

부당징계해고 규탄, 노동안전시스템 마련 촉구 기자회견... “노조파괴 그만두고 안전 확립에 나서라”

금속노조와 포스코지회는 12월 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무노조경영 포스코 노동탄압부당징계해고 규탄, 노동안전시스템 마련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

포스코에서 지난 한 달 사이 다섯 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세 건은 12월 11일과 12일 이틀 사이에 발생해 현장에 충격을 줬다. 사고 대부분이 기계에 신체가 빨려 들어가는 협착, 절단 사고였다.

김용균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가 12월 11일 혼자 근무하던 중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에 머리가 끼여 목숨을 잃었다. 같은 날 포스코에서 혼자 일하던 노동자는 팔을 잃었고, 다른 노동자는 머리가 끼여 죽을 뻔했다. 12일에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도 있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올해 다섯 명의 노동자가 포스코에서 쓰러졌다. 금속노조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겠다. 금속노조는 끝까지 포스코 조합원들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우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동화기업 분회장은 “젊은 노동자가 팔을 잃었다. 충격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며 “하청업체인 톨앤롤과 원청인 포스코는 책임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우만 분회장은 “포스코에 촉구한다. 다치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 노조는 어떤 탄압에도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투쟁에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포스코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 현장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노조 간부를 해고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한대정 지회장은 “노동조합은 오늘 날짜로 회장 최정우를 해고한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복직 투쟁으로 반드시 현장에 돌아갈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골리앗 농성과 상경 파업 기세로 2018 단체교섭 승리”

대우조선지회, 산업은행 자율교섭 방해 규탄대회 ...1조 원 흑자 예상, “허리띠 더 조르란 말인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에 노사 교섭 간섭을 멈추고 회사와 노동자의 직접교섭을 보장하라”라는 요구를 외쳤다.

노조 대우조선지회는 12월 1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신상기 대우조선지회장이 올해 안에 단체교섭을 마무리하자는 요구를 걸고 골리앗 크레인 농성을 돌

입한 지 아흐레째를 맞이했다. 대우조선지회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김호규 위원장은 “조선 노동자들은 줄라멜 허리띠가 없을 정도로 버텼다. 이제 서서히 수주물량을 회복했다. 정부와 자본은 이에 따른 분배를 다시 보장해야 한다”라며 “조선노동자들이 한데 뭉쳐 대응을 해야 한다. 국가가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만들 때

까지 금속노조와 함께 투쟁하자”라고 강조했다.

조재영 노조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은 “대우조선은 올 연말까지 1조 원 흑자를 예상한다. 수주도 잘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 배 지을 사람이 없다”라며 “채권단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강력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